

# 감성 기반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의 음성 특징 규명

조일영\* 이우용\*\* 조동욱\*\*\* 허준\*  
\* 고려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충북도립대학교  
e-mail : whdlfdud0104@naver.com

## Identifying the Voice Characteristics of Ministers who Deliver Emotion-based Sermons

Il Yeong Cho\* Woo Yong Lee\*\* Dong Uk Cho\*\*\* Jun Heo\*  
Korea University\* ETRI\*\* Chungbuk Provincial University\*\*\*

### 요 약

현재 우리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기독교 신자에 대해 교회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목회자들의 설교 방식과 내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설교방식에 있어 감정에 기반하여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의 음성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을 신자들이 느끼게 하고자 하는 지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1. 서론

음성을 통해 자신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심지어 방송국에서조차 프로그램의 분위기에 맞는 음성을 소지한 사람을 캐스팅한다. 이렇게 선택된 MC 또는 배우들은 그들의 음성을 통해 각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시청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형성한다. 대표적으로 강호동의 경우엔 흥겨움을 주고, 유재석의 경우 논리적이고 지적인 매력을 시청자들에게 준다.[1] 종교 또한 마찬가지이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20%로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빠른 시일내 기독교가 성공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목회자들의 설교 방법이 신도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임은 틀림이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즉, 감정에 기반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음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음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시각적, 정량적 수치를 기반으로 그 설교 방법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규명해내고자 한다.

### 2. 실험대상자 선정

아래 그림 1에 본 논문에서 실험을 위해 선정한 목회자들 3인을 나타내었다. 좌로부터 전광훈 목회자, 장학일 목회자, 장경동 목회자를 나타내었다.



Fig. 2. 3 Subjects used in the experiments

실험을 위한 음성 분석기로는 프라트를 사용하였다.[2]~[3]

### 3. 음성 특징 분석 결과

아래 그림 2 - 그림 5에 감성 기반 설교를 하는 실험대상자에 대해 각각 목소리 음성 분석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다음 표 1에 실험대상자의 음성 실험 결과를 수치값으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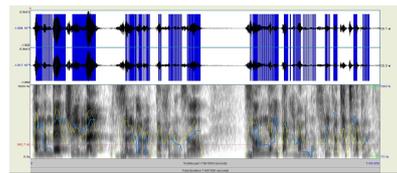


Fig. 2. Voice characteristics of minister Kwang-Hoon J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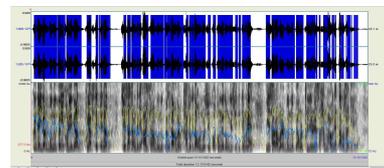


Fig. 3. Voice characteristics of minister Hak-Il J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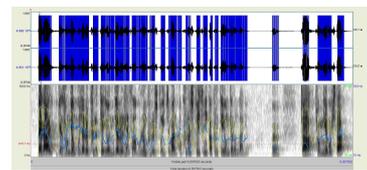


Fig. 4. Voice characteristics of minister Kyung-Dong Jang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Bandwidth of pitch [Hz]	Mean pitch [Hz]	Intensity [dB]	Speech speed	DoVB [%]
Kwang-Hoon Jeon	257.703	203.448	70.577	135	44.490
Hak-II Jang	234.376	197.846	76.433	234	25.660
Kyung-Dong Jang	199.517	192.822	73.841	169	35.425
Average	230.532	198.038	73.617	179	35.191

위의 표 1을 보면 이성적, 논리적 느낌을 받게 하는 목회자들과 달리 달리 각 교회 목회자가 예배 시 감성에 기반하여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음성의 힘이 평균 에너지 73.617[dB]로 약간 큰 편이며, 음높이 평균 198.038[Hz]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아울러 평균 편차가 230.532[Hz]로 큰 편에 속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 평균 음성에 실리는 음높이인 118[Hz]에 비해 음높이가 대단히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이할 점은 실험대상자 중 어느 목회자는 음높이에 비해 에너지는 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는 감정 기반을 둔 목회자의 음성 높낮이로서는 적합하지만 음성에 실리는 힘은 이에 비례하여 적은 편으로 음성의 전달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음성에 실리는 힘의 값을 동반 상승시키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실험대상자 모두 발화 속도는 평균 179음절로 대단히 천천히 말을 하고 있었으며, DoVB의 비율도 35.191[%]로 나타났다. 이는 논리적 설교 전달 방법을 택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고 있는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여겨지며 아울러 자신이 신중함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 여겨지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그림 5 - 그림 7에 실험대상자 목회자가 설교할 때의 소리 성분 음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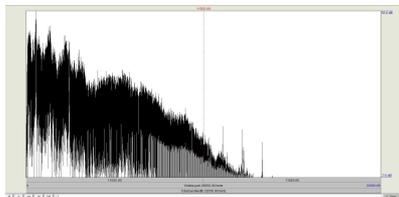


Fig. 5. Spectrum of Kwang-Hoon J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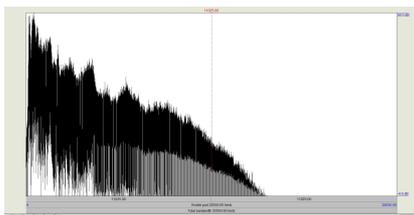


Fig. 6. Spectrum of Kyung-Dong J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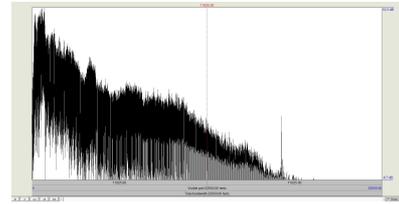


Fig. 7. Spectrum of Kyung-Dong Jang

위의 스펙트럼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대상자 목회자들에 대한 음성 스펙트럼의 모습이 유사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들이 다루는 설교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 것으로 의미적으로 같은 것이고 아울러 감성에 기반한 설교인 관계로 음성 생성에 관여하는 근육과 기관의 활용을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성공한 목회자들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감성에 기반을 둔 느낌을 주는 목회자들에 대한 음성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업을 행하였다. 감성에 기반을 두어 설교하는 유형의 목회자들은 음성에 힘을 평균보다 약간 큰 편으로 싣고 있었으며, 음높이 평균 역시 매우 높은 편에 속하였다. 더불어 평균 편차 또한 큰 편에 속하였고 이는 남성 평균 음성에 실리는 음높이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설교를 듣는 신도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의 음성 전달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oVB의 경우 논리적 느낌을 주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과 감성 기반 설교를 하는 두 부류 집단 모두 각각 38.058[%]와 35.191[%]로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유형의 목회자들과 감성적으로 설교하는 유형의 목회자들이 높은 수치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분당 말하는 발화 속도 또한 두 집단 역시 대단히 천천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결론적으로 감성에 기반하여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경우 신도들로 하여금 흥겨움과 감동을 주는 동시에 신중함 또한 갖추고 있는 목회자임을 나타내는 음성 전달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References

[1] Y.H.Song et al,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MC's voice and TV Program", Proc. of Fall Conf., Nov., 2023.  
 [2] B. G. Yang, *Theory and Practice of speech Analysis Using Praat*, Masu Publishing Co., 2003.  
 [3] B. J. Lee, et al., "Ident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reporting voices and false reporting voices for development of the false report discrimination system," *J. KICS*, vol. 42-C, no. 4, Apr. 2017.